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5월 후원미사는 20일, 6월 후원미사는 17일, 7월 후원미사는 15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9년 3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4,820,000	전월이월금	5,000
지 로	1,747,740	우리은행	2,601,000
국민은행	3,614,000	하나은행	896,000
조흥은행	85,000	신한은행	1,005,690
외환은행	397,500	제일은행	190,000
농 협	1,064,400	기업은행	295,000
우 체 국	25,000	교구보조	2,898,670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벧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지원금	2,000,000	장기수선충당금, 운영관리비 등	
운영비	2,000,000	이주사목위원회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4,825,000	잔액(이월금)	56,021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9. 04 / 제34호

펴낸날 2019. 4. 15 |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 펴낸이 남창현 |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 팩스 (02)924-9972 |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제주도에 사는 지인이 제철과일이라며 한라봉을 보내주었습니다. 쌀쌀하던 날씨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미세먼지도 덜해지는 요즘 한라봉을 먹으면서 막연히 다시금 제주도로 훌쩍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 하면 삼다도(三多島)가 떠오르지요.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성들이 많은 아름다운 섬이라는 삼다도.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삼다도이면서 동시에 삼무도(三無島)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담벼락이 없고, 도둑도, 거지도 없다는 뜻이라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주도가 삼다도라는 말은 낭만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네들의 상처들과 척박함과 고생스러움을 뜻하는 말이고, 이러한 고통을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삼무도라는 것이었습니다.

판공성사를 다니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서 불목하는 본당 공동체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목의 이유가 몇몇 신자들의 편협한 욕심 때문이든, 사제의 부덕의 소치이든, 정치적 성향의 차이 때문이건간에, 그러한 불목 속에서 신자들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신앙으로 다시금 끌어안으려 고민하는 사제의 모습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열심한 신자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입니다.

한때 신앙을 그저 하느님과 나와 관계로만 생각하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공동체, 본당 공동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인류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형성해 갑니다. 그러니 신앙은 하느님과 나와 관계인 동시에 하느님과 나의 공동체의 관계가 됩니다. 나만 성화되었다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신앙이 단순히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라면, 성사도 성전도 본당공동체도 그 의미를 잃습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부활은 나의 개인적인 부활체험을 넘어서는 우리의 공동체 모두가 함께 체험하는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상처를 통해 내 공동체의 상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오상을 통해 제자들이 주님이 그 주님임을 알아보았듯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상처가 서로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부활을,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 창 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공동체 소식

사랑의 집 소식*



입소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소방재난안전 보라매 체험관을 방문하여 지진/화재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 및 소화기 사용방법 등 실제에 준하는 가상체험을 통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입소자 여성과 자녀들이 다양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마고네공부방 소식*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생 수가 17명까지 늘어나면서 공부방은 더욱 활기찬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한 만큼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는데 용문고 학생, 국제과학고 학생, 한국외대 학생, 신학생, 개인 봉사자들의 다양한 도움의 손길로 혼란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큰 도움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지하겠습니다.



남미 공동체 소식*



스페인어로 배우는 한국어교실이 매월 둘째·넷째 주일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에 노동사목회관 2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권 이주민을 대상으로 평일에 직장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렵거나 한국어 이해를 더 쉽게 하고자 자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면서 재미있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미사가 있는 주일 이면서 자국어로 언어교육을 재미있게 받고 있기 때문에 수업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오리엔테이션

동화책 읽어주기 ▶



문화알림 인기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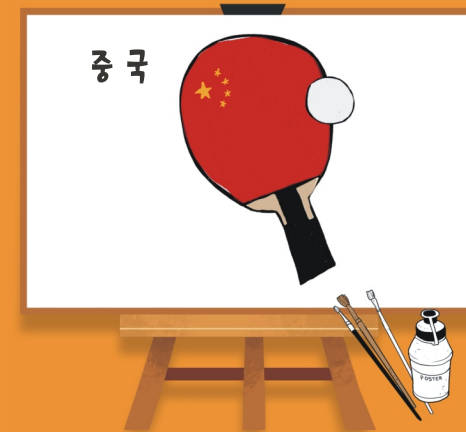


베트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로서 축구시합이 있는 날에는 모든 국민들이 TV 앞에 모여, 길거리에 약간의 공터만 있으면 몇 명이 모여 축구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월드컵 등 국제적인 주요 경기가 있을 때에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경기를 시청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인 박항서 감독 부임 후 베트남 축구팀의 좋은 성적으로 축구 인기는 더 고조되어 있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도 인기가 있으며, 태권도도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말타기, 활쓰기와 더불어 인기 있는 전통경기로 브호가 있습니다. 징기스칸 시대부터 이어져 온 몽골의 전통 씨름으로 한국의 씨름과 유사하지만 유목민족인 몽골의 지역적인 특성이 살려져 있습니다. 브호의 우승자들은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받기 때문에 남성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은 독수리 춤을 추면서 자신의 용맹함을 표현하고, 모자를 벗은 후에 경기장에 섭니다. 이긴 선수는 진 선수의 영당을 오른손으로 탁 친 다음, 심판이 전해주는 모자를 쓰고 '항가리드'라는 춤을 춥니다.



중 국



1959년 '용국단'이라는 탁구선수가 세계탁구 챔피언리그에서 챔피언을 얻게 됨에 따라 탁구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실내, 외에서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고, 적은 비용과 간단한 운동 도구만 있어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탁구를 국기로 여길 정도로 탁구에 대한 열정이 크며, 그에 따른 지원 또한 엄청납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와 비례하는 인재들이 탁구 유망주로 크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 프로리그 또한 세계최고 수준입니다.